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부모의 영향 및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Adolescent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The Role of Parents and the Effect of Adolescent Prejudice on  
Self-Identity and Coping Styles

임지영(Ji Young Lim) · 그레이스 정(Grace H. Chung)

Major in Child and Family Studies · CBA(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s the immigrant population is rapidly growing in South Korea, it is important for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adolescents to foster unprejudiced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This paper thus seeks to shed light on adolescent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by addressing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1) Does a mother's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and parenting style influence their adolescent children's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2) Does an adolescent's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influence his/her self-identity? (3) Does an adolescent's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influence his/her coping styles? The sample consisted of 288 pairs of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According to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a mother's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significantly predicted her adolescent's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after taking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to account, whereas her parenting style did not. In addition, having a low level of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among adolescents predicted high levels of self-identity (e.g. independence, proprioceptive, and mission orientation), and a greater use of positive coping skills (e.g. support-seeking and problem-solving). Overall, results showed that mother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their adolescent's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Results also provided evidence that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may interfere with the healthy development of self-identity and coping style during adolescenc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for adolescents can be more effective, when it is provided in partnership with a parent education program that is designed to raise parental multicultural awareness.

주제어(Keywords) : 청소년(adolescents), 이주민에 대한 편견(prejudice towards immigrants), 대처양식(coping style), 자아정체감(self-identity),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

I. 서론

최근 법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1,308,743명이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169,931명이다. 이 중 16-60세의 불법체류자

는 152,702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26], 국내 체류 외국인과 관련된 이러한 통계수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시사해준다. 이에 책임과 의무 및 권리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성인 기로 곧 진입하여 무한 경쟁 속에 내던져져야 하는 한국의

**Corresponding Author** : Grace H. Chung,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1620, Fax: +82-2-873-8517, E-mail: gracechung@snu.ac.kr

\* 이 논문은 경북대학교(임지영) 및 서울대학교(그레이스 정) 신입교수 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청소년들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 즉 다양성과 나와 다름에 대한 존중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게다가 급속하게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현상을 고려한다면 세계화를 마음으로 수용하고 주체성과 함께 개방성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국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타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다른 문화가 문화적으로 우리 것과 다른 것일 뿐이지 결코 우리 것에 비해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된다[23]. 하지만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온 경험이 전무하기에 자신과 문화적·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공존해야 하는지를 학습하고 연습할 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24]. 한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인종 및 민족들에 대한 편견을 측정한 결과[24], 한국 청소년들은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대해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인 집단과 흑인집단에 대해서는 차별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견(prejudice)은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태도를 말하며,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 그 집단 명칭에 의거해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지칭한다[21].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만 1-3세만 되어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피부색, 성, 신체 구조 등에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문화적 행동을 인식하기 시작하며[2, 27], 만 6세가 되면 민족 집단, 성 이외에도 사회 계층, 장애 상태, 지역에 따른 생활 방식과 하위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며, 자기가 속한 집단 구성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고 본인과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한다[13].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화과정과 직·간접 경험에 의해 이러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타집단에 대한 편견이 강해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논리적 사고력의 증대로 상황을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타집단에 대한 개방적 사고 역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발달 시기의 특성상 청소년기는 타집단에 대한 특정 견해를 형성함에 있어 양극화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간주될 수 있다.

게다가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한국의 청소년들이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는 한국사회를 양극화하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청소년들의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39]. 또한 이러한 편견적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와 접촉을 회피하도록

만들으로써, 역으로 편견자 스스로 인간관계의 회피나 단절 및 배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고[19] 청소년 자신의 사회·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어떠한 기제로 타집단에 대한 편견을 발달시키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국내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심리학적 접근에서 청소년들이 보이는 편견을 이해하려 하였고[3, 18, 39], 청소년의 편견 형성에 있어 부모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하지만 서구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보이는 소수 집단이나 타집단에 대한 편견 혹은 수용태도에 있어 부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22]. 즉, 가치와 신념이 부모에 의해 형성됨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이 가족 내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될 뿐 아니라 직·간접 경험에 의해 강화되어 발생됨을 고려해 본다면 자녀가 가지는 편견이나 타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는 부모의 수용태도와 유관할 수밖에 없다[25].

이렇게 부모의 사회화과정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갖는 타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은 Allport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었다. 그에 따르면 편견은 부모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 의해 “잡혀지는(caught)” 것이다(p. 300)[4]. 사실 이러한 설명은 Bandura의 모델링 개념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즉 모방학습, 강화 및 연합과정에 의해 소수 집단이나 타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어릴 적에 학습되어, 성인이 되어 이를 통제하고자 해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5]. 게다가 아동이 부모를 동일시할 때에만 부모의 편견수준과 아동의 편견수준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들[34]은 모델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지지한다. Bigler 외 역시 교사나 부모를 포함하는 성인들이 사용하는 특정 그룹에 대한 명칭 또는 성인들이 타집단에 속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포함된 사람들을 미묘하게 분리하는 행동을 아동이 관찰함으로써[30], 타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을 강력하게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7]. 하지만 외국에서조차 지금까지 매우 소수의 경험적 연구들이[28, 34] 자녀들의 편견 형성에 있어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고, 국내에서는 단 한편의 논문만이 부모가 보이는 지역감정이 자녀가 보이는 지역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을 뿐이어서[25]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형성에 있어 부모의 역할 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서구에서 수행된 이주민을 포함한 타집단에 대한 편견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편견과 자녀의 편견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16]. 유아기나 청소년기 백인 아동과 그들의 부모가 지니는 타인종에 대한 태도간의 비교 연구에서 중간 정도의 상관관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10, 28], 초등학교생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이 둘 간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힌 연구들도 있었다[2]. 심지어, 흑인가정의 경우에는 부적 상관관을 보였는데, 즉 부모가 타인종에 대해 낮은 수준의 편견을 보인 경우에만 아동들이 높은 수준의 편견을 보고 하였다[9]. Castelli 외는 기존에 수행된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보이는 태도나 편견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청소년 시기에만 국한되어 보고된다고 결론을 내렸다[12]. 이렇게 부모가 가지는 편견이 인지적으로 최고의 성숙 수준에 도달한 청소년기에만 자녀의 편견수준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보인다. 즉, 이러한 관계가 청소년기에 더욱 강해지는 이유는 부모의 편견을 내면화할 인지적 역량이 청소년기에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이다[1].

또한 부모가 보이는 편견수준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자녀들이 형성하는 편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구 연구들은[33]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편견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권위주의적인 부모들은 복종과 경계의 엄격함을 강조함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집단 간 경계에 초점을 두게 하여 아동의 편견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연구 중에서는 다문화 수용태도나 편견의 문제를 부모-자녀관계에서 접근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형성하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있어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부모의 영향을 봄으로써 한국 청소년들이 가지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편견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 시대에 자녀의 반편견 교육이나 지도에 있어 부모의 역할과 활동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실효성이 있고 시기적절한 주제라고 보여 진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한국 청소년들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아정체감과 문제대처양식을 살펴봄으로써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기 동안의 자아정체감 확립과[15], 이 시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문제대처양식의 획득은 청소년 자신의 발달과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장애, 능력, 그리고 존재 이유 등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중요한 여정이며, 자아정체감은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으로 인간이 인생 과정에서 부딪치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 관련하여 그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자신에

대한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자신의 신체적·사회적 감각이다[29]. 이 여정을 통해 정체감이 긍정적으로 확립되면 청소년들은 주체성을 갖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제 2의 탄생이라고 불리는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볼 때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아동기적 발달환경에서 성인의 발달환경으로 이행해 가면서 두 환경 간의 교차된 영역을 갖게 됨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이다. 더욱이 급격한 변화와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내면적 혼란과 갈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35]. 즉, 청소년들은 아동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물학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할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직면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이 시기의 발달적 특징과 과업 등으로 인해 성인들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에 다양한 스트레스나 문제에 노출되면서 성인으로 전환되어 가므로 자아정체감 확립과 더불어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대한 긍정적인 문제대처양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적응기제들을 성공적으로 발달시켜 나가는 청소년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적응의 문제로 고통 받기도 하므로 이 시기에 적절한 대처양식의 획득은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17].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자아정체감과 문제대처양식은 타인에 대한 편협한 견해와 고정된 인식, 즉 편견과 연관이 있다[19].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을 수정·보완한 자기범주화 이론(self categoriza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세상의 사물을 범주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자신과 유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내집단(ingroup)으로 범주화하고 자기와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자기범주화를 통해 사회정체감을 갖게 되면 탈개인화(depersionalization)가 일어나게 되어 자신을 독특한 개인이라기보다 사회적 범주의 한 성원으로 규정하게 된다[38]. 이에 사회정체성이 높거나 자기범주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타집단에 대한 편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20]. 따라서 높은 수준의 자기범주화로 인해 야기되어지는 탈개인화는 개인의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게다가 선행연구들은 타인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관계 개선 훈련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41],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형성에 타인에 대한 편견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해 높은 수준의 편견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간관계의 회피나 단절 및 배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19], 어려운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대응을 처하지 않는 등 문제대처 양식에 있어서도 제한된 방법만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타인이나 타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대상 집단에 대해 보다 소원한 인간관계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다[8]. 일례로, 특정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 친구, 세주기, 동업 및 이웃으로 삼기 등 일상생활의 대인 관계에서 대상 집단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꺼리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촉의 회피는 지지추구와 같은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문제대처양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절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보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자신의 긍정적 발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문제대처양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한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고, 청소년들이 보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 수준이 자아정체감과 문제대처양식 등 자신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나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반편견 교육과 양육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주민에 대한 편견 수준을 그들의 부모의 것과 쌍을 이루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의 설정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이 가진 이주민에 대한 편견, 부모가 가진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양육태도,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과 문제대처양식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편견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가 가진 이주민에 대한 편견수준과 양육태도가 청소년이 보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이 보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이 보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청소년의 문제대처양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및

대구시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288명과 그들의 어머니 28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 당시 연구 대상인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2.61세( $SD = 1.82$ )이었고, 남자 청소년 105명(36.5%), 여자 청소년 183명(63.5%)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며, 연령에 따른 빈도는 구체적으로 만 11세 89명(30.5%), 12세 82명(28.5%), 13세 16명(5.6%), 14세 65명(22.6%), 15세 21명(7.3%), 16세 이상 12명(4.0%), 그리고 무응답이 3명(1.0%)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9.78세( $SD = 4.28$ ), 아버지는 42.75세( $SD = 4.65$ )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82.6%; 무응답 11.1%, 이혼 4.5%, 사별 1.4%, 동거 0.3%). 또한 가정의 소득수준은 모른다고 응답한 수(11.6%)를 제외하면,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초과 7,400만원 미만(60.3%), 2,400만원 이하(21.1%), 7,400만원 이상(7.0%)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고졸(부 = 41.0%, 모 = 58.0%)과 대졸(부 = 30.6%, 모 = 21.9%)에 해당하였다.

### 2. 측정 도구

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들은 다음과 같으며, 자아정체감을 제외한 나머지 도구들은 모두 국외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것으로 아동학 박사 1명, 가족학 박사 1명이 번안한 후 이중언어자인 가족학 교수 1인, 한국어와 영어가 어느 정도 능통한 아동학 교수 1인이 정확한 의미전달여부와 타당성을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 1) 이주민에 대한 편견

청소년과 어머니가 가진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Stephan 외가 개발한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이주민에 대한 태도)[37]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6개의 부정적인 행동사(적대적인, 싫어하는, 무시하는, 경멸하는, 증오하는, 거부하는)와 6개의 긍정적인 행동사(존경하는, 수용하는, 호의적인, 인정하는, 동정하는, 애정을 갖는)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0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 점수는 긍정적 문항의 점수를 역채점 한 뒤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tephan 외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6$ 이었으며[37],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Cronbach's  $\alpha = .72$ , 어머니의 경우 Cronbach's  $\alpha = .75$ 로 나타났다.

#### 2) 자아정체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Park이 개발한 자아정체감 척도[29]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제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정체감 유예 및 정체감 혼미의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유예 및 정체감 혼미 요인을 제외한 정체감 획득과 관련된 6개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주제성은 자신이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여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 자기수용성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능력과 재능을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 미래확신성은 자신의 장애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 목표지향성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 주도성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 능력의 정도, 그리고 친밀성은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러한 각 하위요인은 8개 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5이었고 [29],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8로 나타났다.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주제성  $\alpha = .86$ , 자기수용성  $\alpha = .86$ , 미래확신성  $\alpha = .83$ , 목표지향성  $\alpha = .82$ , 주도성  $\alpha = .83$ , 친밀성  $\alpha = .80$ ).

### 3) 문제대처양식

청소년의 문제대처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적 대처 전략을 평가하는 척도인 Brief Coping Orientation for Problem Experiences (Brief COPE)[11]를 사용하였다. 총 2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크게 4 가지 영역 즉, 문제 해결, 지지추구, 부정, 적극적 회피로 분류되고 각 영역에서 다시 각각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대처양식 중 긍정적 대처양식인 문제해결과 지지추구만을 측정하였다. 문제해결은 적극적 대처, 계획하기, 긍정적 재구성, 수용하기를 측정하는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지지추구는 정서적 지지 사용 및 도구적 지지 사용을 평가하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며, 특정 하위 영역의 점수가 높을 때 문제 상황에서 그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arver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문제해결 .82, 지지추구 .75이었으며[11], 본 연구에서는 각각 .81(문제해결)과 .71(지지추구)로 나타났다.

### 4) 어머니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Baumrind의 양육유형[6]을 평가할 수 있는 Parenting Style and

Dimensions (PSD)[32]를 사용하였다. Baumrind는 양육 유형을 권위 있는, 권위주의적인, 허용적인 양육으로 나누었으며[6] Robinson 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는 PSD를 개발하였다[32]. PSD는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태도를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권위 있는 양육  $\alpha = .92$ , 권위주의적인 양육  $\alpha = .78$ , 그리고 허용적인 양육  $\alpha = .60$ 으로 나타났다.

### 5) 재정적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측정치로 소득보다는 부모가 지각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더 잘 나타낸다는 Conger 외의 주장[14]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측정하였다. 재정적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Conger 외가 개발한 질문[14]을 사용하였으며, 청소년의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질문지는 재정적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공과금 납부에서의 어려움(1-4점), 생계문제(1-4점),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0-7점)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점수를 표준화 한 뒤 평균을 구한 값을 재정적 어려움의 점수로 하였다.

## 3. 연구 절차

본 조사를 수행하기 전 연구 대상인 청소년이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지, 응답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 3월에 남아, 여아 각각 5명씩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예비 조사 시 발견된 의미가 애매한 어휘를 수정하는 등 질문지를 보완하여 2010년 5월에 본 조사를 시작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대상자인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기 위해 서울경기 및 대구경북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나 지역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안내문과 함께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질문지 배부 시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에게만 배부하였으며, 어머니에게는 동의서를 함께 배부하여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만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학교 학급의 담임교사나 센터의 담당자에게 질문지의 목적을 설명하고 회수하도록 부탁하여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 18.0 프로그램

Table 1.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predicting adolescent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N = 288)

Variables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Model 1			Model 2		
	B	SE	$\beta$	B	SE	$\beta$
Economic strain	.265	.124	.150*	.240	.122	.136
Education (Father)	-.284	.106	-.188**	-.212	.110	-.140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Mother)				.183	.067	.193**
Authoritative parenting (Mother)				-.193	.129	-.111
Authoritarian parenting (Mother)				.357	.191	.143
Permissive parenting (Mother)				-.221	.211	-.083
F		8.167***			5.666***	
R <sup>2</sup>		.074			.145	
R <sup>2</sup> Change					.071	

\* $p < .05$ , \*\* $p < .01$ , \*\*\* $p < .001$

을 사용하였다. 먼저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  검증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 특성이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자아정체감과 문제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편견의 일반적 경향

연구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난 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t = -.41$ ,  $ns$ ), 연령과의 상관을 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이주민에 대한 편견 간에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다( $r = .001$ ,  $ns$ ).

한편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교육수준 그리고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교육수준( $r = -.19$ ,  $p < .01$ ) 및 아버지 교육수준( $r = -.23$ ,  $p < .001$ )에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22$ ,  $p < .01$ ). 즉, 어머니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보이는 이주민에 대

한 편견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편견을 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의 연령, 성별과 더불어 가정의 전체 교육수준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즉, 지각한 재정적 어려움)은 본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 2.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특성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설명하는 부모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아버지 교육수준, 재정적 어려움)와 부모특성 변수(부모가 보이는 편견과 양육태도 스타일)군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VIF값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모든 변수의 VIF값이 1.47을 넘지 않아,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모델 1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재정적 어려움( $\beta = .150$ ,  $p < .05$ )과 가정의 전체 교육수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beta = -.188$ ,  $p < .01$ )이 청소년이 보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이 모델은 청소년이 보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의 분산 중 7.4%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 부모 관련 변수인 어머니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양육태도 점수(권위있는 양육태도,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 허용적인 양육태도)들을 첨가한 것으로, 모델 2는 모델 1보다 설명력이 약 7.1% 증가한 14.5% 정도의 분산을 설명하였으며, 모델 2에서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predicting adolescent self-identity (N = 288)

Variables	Independence			Proprioceptive			Future certainty			Mission orientation			Self leading			Intimacy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Economic strain	-.095	.077	-.086	.025	.075	.022	-.079	.094	-.059	-.113	.076	-.104	-.050	.076	-.047	.016	.081	.014
Education (Father)	.102	.066	.106	.197	.066	.204**	.165	.082	.144	.056	.066	.059	.095	.066	.104	.105	.070	.108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136	.042	-.220**	-.161	.041	-.259***	-.038	.052	-.052	-.123	.041	-.203**	-.031	.042	-.052	-.058	.044	-.092
F	7.360***			10.733***			2.799*			5.875**			1.670			1.733		
R <sup>2</sup>	.093			.130			.037			.075			.023			.024		
R <sup>2</sup> Change	.044			.061			.002			.038			.003			.008		

\* $p < .05$ , \*\* $p < .01$ , \*\*\* $p < .001$

는 통제변수들이 유의미하게 청소년 자녀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부모특성 변인 중에서 어머니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beta = .193, p < .01$ )만이 유의미하게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보이는 편견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이 보이는 이민자에 대한 편견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3.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청소년 자신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통제변수(아버지 교육수준, 재정적 어려움)들을 1단계에 투입하고,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2단계에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VIF값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모든 변수의 VIF값이 1.15를 넘지 않아,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정체감을 하위영역별(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포함한 2단계 최종 모델만을 보고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주체성의 경우 청소년이 보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 수준( $\beta = -.220, p < .01$ )이 유의미하게 청소년이 보고하는 주체성을 설명하였고, 이는 총 분산의 9.3%를 설명하였다. 즉, 이주민에 대한 편견수준이 높을수록 주체성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성의 경우에는 통제변수 중 아버지의 교육수준( $\beta = .204, p < .01$ )과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수준( $\beta = -$

.259,  $p < .001$ )이 유의미하게 이를 설명하였고, 이 모델은 총 분산의 13.0%를 설명하였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자기수용성을 보였다.

미래 확신성의 경우 이 모델은 총 분산의 3.7%를 설명하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 $\beta = .144, p < .05$ )만이 유의미한 변수였고 청소년이 보고한 이주민에 대한 편견( $\beta = -.052, ns$ )은 미래 확신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목표지향성의 경우에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수준( $\beta = -.203, p < .01$ )만이 이를 설명하였는데, 총 분산의 7.5%를 설명하였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수준이 높을수록 목표지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주체성이나 자기수용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주도성과 친밀성의 경우에는 각각 어떠한 변수와도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문제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청소년 자신의 문제대처양식(문제해결, 지지추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통제변수(아버지 교육수준, 재정적 어려움)들을 1단계에 투입하고,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2 단계에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VIF값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모든 변수의 VIF값이 1.15를 넘지 않아,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2단계 최종 모델은 Table 3과 같다.

문제대처양식 중 문제해결 대처양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모델 1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 통제변수들 가운데 아버지의 교육수준( $\beta = .246, p < .001$ )만이 청소년이 보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predicting adolescent coping styles (N = 288)

Variables	Problem-solving			Support-seeking		
	B	SE	$\beta$	B	SE	$\beta$
Economic strain	-.007	.053	-.010	.059	.064	.064
Education (Father)	.137	.046	.204**	.053	.056	.067
Prejudice towards immigrants	-.098	.029	-.225**	-.130	.035	-.252***
F	9.393***			5.400**		
R <sup>2</sup>	.116			.070		
R <sup>2</sup> Change	.046			.058		

\*\* $p < .01$ , \*\*\* $p < .001$

타내었고, 청소년의 문제해결 대처양식 총 분산의 7.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Table 3)는 모델 1에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첨가한 것으로, 모델 2는 모델 1보다 설명력이 약 4.6% 증가한 11.6% 정도의 분산을 설명하였으며, 통제변수 중에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beta = .204, p < .01$ )만이 유의미하게 청소년 자녀의 문제해결 대처양식을 설명하였고,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beta = -.225, p < .01$ )도 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 대처양식을 보였으며, 청소년 자신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해결 대처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대처양식 중 지지추구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은 모델 전체의 F값도 유의미하지 않았고( $F = 1.315, ns$ ), 어떤 통제변수들도 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투입한 모델 2(Table 3)는 7.0% 정도의 분산을 설명하였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으나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beta = -.252, p < .001$ )이 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수준이 낮을수록 지지추구 대처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제대처양식에 있어서도 청소년 자신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은 청소년이 활용하는 지지추구 문제대처 양식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청소년이 가진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요인들을 탐색하고,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 자신의 자아정체감과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 288명과 그들의 어머니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이민자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아버지의 교육 수준, 부모관련변수 중에서는 어머니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수준이 있었고, 기존의 국외 연구결과와는 달리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청소년이 보이는 이민자에 대한 편견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있어 세대간 전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1, 10, 16, 25, 28)의 결과와는 일치하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연구들(33)과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편견의 세대 간 전이가 확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가 보이는 편견적 행동이나 태도가 청소년 자녀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반편견 교육에 있어 부모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선행되어야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양육태도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유형화된 양육태도의 점수를 분석에 포함시켜서 야기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유형별 양육태도 점수보다는 양육태도의 특정 차원이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화과정이 청소년의 이민자에 대한 편견수준에 미치는 기제에 있어서 양육태도 이외의 다른 부모관련 변수 혹은 가족 변수들(예, 응집성)을 고려하여 차후에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형성에 있어 부모나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해보기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주제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으로 구성된 자아정체감의 경우, 미래 확신성, 주도성, 친밀성을 제외한, 주제성, 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에 있어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즉,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를 평가한 주체성,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성, 장애의 자아상을 확인하고 자기스스로가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된 목표지향성에 있어서 낮은 수준의 이주인에 대한 편견이 높은 수준의 자아정체감 확립을 설명하였고, 미래확신성, 주도성, 친밀성의 경우에는 어떤 변수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그동안 연구된 적이 없는 분야이므로 이런 결과를 지지할만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없으나 타인에 대한 좁은 견해와 고정된 인식이 자신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9]의 결과를 지지하고, 이는 이주인에 대한 편견과 같은 타인에 대한 좁은 견해는 본인 스스로의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중요한 연구결과라 하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아니나 타인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관계 개선 훈련 결과, 자아정체감 정도가 높았다는 연구[41]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정체감 획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이주인에 대한 편견은 청소년 자신의 자아정체감 발달 및 형성, 특히 미래 확신성, 주도성, 친밀성을 제외한, 주체성, 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통제변수들과 청소년의 이주인에 대한 편견은 각 하위 자아정체감 영역의 약 2.3~13.0% 정도만의 분산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자아정체감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연구되어온 자기효능감등의 심리내적 변수, 가족기능과 같은 가족관련 변수, 사회적지지 [21, 36]와 같은 변수들이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았고 선행 연구들처럼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의 총합을 사용하지 않고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대처양식에 있어 문제해결중심의 대처양식이나 지지추구 대처양식 모두에서 청소년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적극적 대처, 계획, 긍정적 재구성, 수용을 포함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대처양식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사용, 도구적 지지 사용을 포함하는 지지추구 대처양식의 경우 모두, 이주인에 대한 편견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대처할 때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않거나 지지를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간관계의 회피나 단절 및 배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19]와 일치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편견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 시에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주인에 대한 편견이 청소년 자신의 대처양식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본인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통제변수들과 청소년의 이주인에 대한 편견은 각 하위 대처양식의 약 7.0~11.6% 정도만의 분산을 설명하였는데, 설명되지 않은 분산은 기존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대처양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포함되어 왔던 자아존중감, 자기효율성,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지지[31, 40]와 같은 변수들이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았고 선행연구들처럼 대처양식 하위영역의 총합을 사용하지 않고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세계화에 발맞추어 한국 청소년들의 국제 감각을 함양시키는데 있어서나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관련되어 청소년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나 매우 피상적 수준의 기술이 대부분이었다[39].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한국 청소년의 개방적 사고 및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위해, 그리고 급속히 다양화되는 한국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반편견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이러한 노력이 부모-자녀관계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보이는 이주인에 대한 편견이 청소년 자신의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대처양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초·중·고등학교에서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방적 태도와 보편주의 및 다양성의 가치 등을 학습시키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19], 청소년들에게 열린 사고와 태도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여 조사하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부모의 편견이나 양육태도가 청소년 이 보이는 이주인에 대한 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편견이 자신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이주인에 대한 편견과 부모의 특성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

도와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만 국한시켜 연구를 수행하였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대처양식에 있어 청소년이 보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의 역할에만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변수들, 또래관련 변수들, 그리고 자아정체감과 대처양식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청소년 자신의 자아정체감과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1. Aboud, F. E. (1988). *Children and prejudice*. New York: Blackwell.
2. Aboud, F. E., & Doyle, A. B. (1996).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children's racial att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 371-383.
3. Ahn, S. S., & Kim, K. M. (2008). Attitude toward gender equality polices: Relations between gender egalitarianism, opposition to affirmative action and perception of the justic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3*(3), 299-324.
4.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5. Bandura, A. (1999). *Self efficacy*. (U. C. Kim, Trans.) Seoul: Kyoyookbook.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6. Baumrind, D. (1971). Harmonious parents and their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1), 99-102.
7. Bigler, R. S., & Liben, L. S. (2007). Developmental intergroup theor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 162-166.
8. Bogardus, E. S.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299-308.
9. Branch, C., & Newcombe, N. (1986). Racial attitude development among young Black children as a function of parental attitudes: A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study. *Child Development, 57*, 712-721.
10. Carlson, J. M., & Iovini, J. (1985). The transmission of racial attitudes from fathers to sons: A study of Blacks and Whites. *Adolescence, 20*, 233-237.
11. Carver, C. S. (1997). You want to measure coping but your protocol' too long: Consider the brief cop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92-100.
12. Castelli, L., De Amicis, L., & Sherman, S. J. (2007). The loyal member effect: On the preference for ingroup members who engage in exclusive relations with the in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43*, 1347-1359.
13. Chang, Y. H. (1997). Study of concepts and method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Sungshin Journal, 35*, 295-314.
14. Conger, R. D., Elder, G. H., Jr., Lorenz, F. O., Conger, K. J., Simons, R. L., Whitebeck, L. B., et al.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56.
15.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ew York: Norton.
16. Fishbein, B. K. (2002). *Waste in the wireless world: The challenge of cell phones*. New York: Inform.
17. Heppner, P. P., Cook, S. W., Wright, D. M., & Johnson, W. C., Jr. (1995). Progress in resolving problems: A 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279-293.
18. Kim, H. S. (2000). The effect of beliefs and affect regarding group categories on prejudiced judgment.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1), 1-16.
19. Kim, H. S. (2002). Stereotypes, prejudice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9*, 83-100.
20. Kim, H. S., Kim, D. Y., Shin, H. C., & Yi, J. Y. (2011). Psychological adaptation of Koreans in the multicultural era: The effects of social identity, acculturation-related ideologies, and intergroup contact on prejudice against migra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2), 51-89.
21. Kim, J. Y. (2010). Comparative analysis of

- socialization environment of family between Korean and Swedish youth: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positive ego-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8), 157-176.
22. Kinder, D. R., & Sears, D. O. (1981). Prejudice and politics: Symbolic racism versus racial threats to the good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414-431.
23. Kwon, J. I., Suh, D. H., Suh, H. J., Lee, T. J., Cho, T. H., Han, G. S., et al. (2007). *Understanding multicultural society*. Paju: Dongnyuk.
24. Lim, S. T. (2003). The analysis of Korean students' stereotypical attitudes toward other ethnic group.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1(3), 275-301.
25. Min, H. Y., & Kong, I. S. (2007). Regional antagonis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 the Youngnam reg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4), 277-287.
26. Ministry of Justice. (2011). Immigration · foreigner policy statistics monthly newsletter: March, 2011. Retrieved March 20, 2012 from <http://moj.go.kr>.
27. Nesdale, D. (2001). The development of ethnic prejudice. In M. Augoustinos & K. J. Reynolds (Eds.), *Understanding prejudice, racism, and social conflict* (pp. 57-72). London: Sage.
28. O'Bryan, M., Harold, D., Fishbein, P., & Ritchey, N. (2004).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rejudice, sex role stereotyping, and intolerance. *Adolescence*, 39, 407-426.
29. Park, A. C. (1996).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1), 140-162.
30. Patterson, M. M., & Bigler, R. S. (2006). Preschool children's attention to environmental messages about groups: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origins of intergroup bias. *Child Development*, 77, 847-860.
31. Phee, S. S., Oh, S. W., & Park, M. C. (2000). Influences of perceived stress, dysfunctional attitude,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coping style on maladaptation in the adolescents with substance abus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2), 297-308.
32. Robinson, C. C., Mandelco, B. L., Olsen,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 77, 819-830.
33. Rohan, M. J., & Zanna, M. P. (1996). Value transmission in families. *The Psychology of Values: The Ontario symposium*, 8, 253-276.
34. Sinclair, S., Dunn, L., & Lowery, B. S. (2005). The influence of parental racial attitudes on children's automatic racial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283-289.
35. Song, H. O. (2009).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s ego-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36. Song, H. O., Park, A. C., & Choi, S. Y. (2010). A structure model analysis between a family environ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ego-identity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2), 109-129.
37. Stephan, W. G., Ybarra, O., Martinez, C. M., Schwarzwald, J., & Tur-Kaspa, T. (1998). Prejudice toward immigrants to Spain and Israel.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9(4), 559-576.
38. Turner, J. C. (1987). A categorization theory. In J. C. Turner, M. A. Hogg, P. J. Oakes, S. D. Reicher, & M. S. Wetherell (Eds.),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pp. 42-67).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39. Yang, K. M. (2009). The factors influencing the Korean adolescents' attitude to minority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2), 59-79.
40. Yoon, S. K. (2004).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the experience and adaptation of stres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3(2), 239-251.
41. Yoon, Y. H., & Koh, M. S. (2004). A study on the effects of ET training for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identit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0(3), 291-298.

접수일	2012년 4월	16일
심사시작일	2012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2012년 7월	19일